

전력산업 이동홍보관 '성료'

경주서 과천까지 총8회 운영...1만9000여명 참관 성과



지난 9월 12일 경주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해 온 '빛의 세상으로 달려가는 전기체험홍보관'이 11월 1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산업자원부, 전력거래소가 주최한 2006 전력산업 이동홍보관은 소중한 생활의 빛 '전기'와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체험놀이 형태로 진행됐다.

각 시·도 교육청 주관행사장과 지자체 행사 지정장소에서 선별·시행된 2006 전력산업 이동홍보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홍보를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 방식으로 수행됐다.

특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동에 반응하는 콘텐츠'로 구성된 이동홍보관은 도전 발전왕 콘테스트, 전기원리 체험 작동모형 및 전기퀴즈박사 선발대회 등 이벤트가 함께 운영됐다.

특히 자라나는 차세대를 주 대상으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보고 만지며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로 연계 구성된 체험전시관에 대한 각계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1만9000여명이 참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각 시·도교육청과 공조체제를 구축, 홍보 시너지 효과와 참여의 폭을 확대해 시행함으로써 전력산업이동홍보관 운영 성과를 높였으며, 8회라는 제한된 횟수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대국민 이해도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